

보급자리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 도입 · 시행

업무처리지침 제정, 신속하게 추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보급 자리주택지구를 현재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원형지 형태의 토지를 민간에게 미리 공급하는 방식을 신규 도입하고, 『보급자리주택지구 원형지 선수공급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고 6.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12월부터 2010.5월까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거치고, 전문가 자문회의, 사업시행자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본 지침을 확정하였다.

원형지 선수공급 방식이란 부지 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토지 용도가 확정된 후 토지 보상 전에 사

업시행자와 민간 건설사 등이 협약에 의해 택지 공급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대규모 정책 사업의 추진에 따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동시에 택지 공급으로 조기에 회수된 자금을 보급자리주택 사업에 투입할 수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원형지 선수공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원형지 공급계획 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을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된다. 다만,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원

형지를 공급받은 자는 토지 보상이 완료된 후에 원형지 조성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 원형지로 공급하는 토지는 보급자리주택용지 등을 제외한 민간에게 공급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급 규모는 공동주택건 설용지, 상업용지 등 개별 블록 단위로 공급한다. 사업시행자가 지형 등의 여건상 원형지 조성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로 · 녹지 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급가격은 보급자리주택은 GB를 해제한 지역으로서 민간에 대한 특혜시지를 배제하기 위해 『보급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상의 가격체계를 기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원형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와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용지별로 정한 공급대상자와 공급방법을 그대로 따르도록 하였다.

원형지를 선수 공급받은 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공급을 납부하며, 선수금은 원형지를 선수공급한 보급자리주택의 사업비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였다.

원형지 공급을 활성화하고 원형지를 공급받은 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조성한 비용과 선납한 선수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차감토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토지사용시기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협약 해제에 관한 특약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공정 협약, 공정한 하도급거래에 효과’

공정위 “용역서비스업이 협약체결효과 가장 커”

하도급 거래가 많은 건설업, 제조 · 수리업, 용역서비스업 등 3개 업종 가운데 용역서비스업의 원사업자들이 가장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에 1천개 하도급 수급사업자(협약 체결 500개사, 미체결 5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협약체결기업과 미체결 기업의 공정성 비교’라는 보고서로 지난 8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09년 개발된 ‘하도급 거래 공정성 평가 모델’에 따라 하도급 계약체결, 계약이행, 상생협력 등 3개 부문에서 계약업체 선정, 하도급대금지급, 자금 지원방법 및 이행 등 11개 세부 측정지표를 토대로 조

사를 실시해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천개 수급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시장전체의 공정성 종합지수는 77.4점으로 나타났으며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79.7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사업자가 75.3점으로 평가됐다.

협약체결 원사업자가 미체결 원사업자보다 4.4점 높게 나타난 것.

특히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공정성 종합지수 격차는 하도급 계약체결(0.3점)이나 상생협력(0.2점)보다 하도급 계약이행 단계의 공정성에서 크게(3.9점) 벌어졌다.

업종별로는 제조 · 수리업의 공정성 종합지수가 78.3점으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 77.1점, 용역서비스

업 75.5점 등의 순이었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종합지수는 용역서비스업 81.5점, 제조 · 수리업 81.2점, 건설업 78.4점이었으나 협약 미체결 원사업자의 종합지수는 제조 · 수리업 76.8점, 건설업 74.4점, 용역서비스업 69.2점 등이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협약 체결 원사업자와 미체결 원사업자의 업종별 공정성 평가지수 차이는 건설업이 4.0점으로 가장 컸고, 제조 · 수리업 4.4점이었으나 용역서비스업은 12.3점이나 됐다.

즉 공정거래 협약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업종은 용역서비스업인 것으로 분석됐다.

ITS 및 건설 해외 사업 진출 다자간 MoU 체결

KOTRA, ITS Korea,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총 4개 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한국수출입은행(K-EXIM), 해외건설협회(ICAK)는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교통체계, 이하 ITS) 및 건설 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 수출증대 및 ITS 관련 교육의 상호 업무 협력 등의 성공적 추진 및 관련 사업분야의

확대를 위해 지난 7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국내외 ITS 및 건설 분야 해외의 관련 프로젝트 및 사업발주 정보 공유, 관련 세미나 및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마케팅 사업 참여 및 홍보지원 등을 위해 협력한다.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상호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정보공유 및 지원

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의 관계자는 “이번 다자간 업무협약으로 인해 보다 체계적인 ITS 및 건설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며 “ITS전문 기관, 해외진출관련기관 등이 공동 협력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성공모델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ITS와 건설 분야는 해외시장에 진출 가능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MOU 체결을 통해 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및 경쟁력을 공유하여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수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당일 지급 실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강팔문)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파랑새 Loan)’가 긴급 생활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2011년 6월 1일(수)부터 신청 당일 지급기로 하였다.

그동안 생활자금 대부금지급은

신청후 5일정도 소요되어, 지급 지연 따른 근로자 민원 및 긴급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신청 당일 대부금이 지급됨에 따라 지급지연에 따른 근로자 불편 해소와 더불어 긴급 생활자금으로 활용 등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지원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생활자금 대부는 2009.3월 진서민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연인원 174천 명에게 1,393억원(2011.5월현재)이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급 되었으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공제 적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적립액의 50%범위내에서 무이자로 지급된다.

건설근로자 생활자금 대부 당일 지급과 더불어 퇴직공제금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소음 슬래브거푸집 공법 등 신기술 지정

5월에 2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 · 고시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금년 5월에 건설신기술 개발자들의 건설신기술 지정신청 4건을 심사하여 2건을 건설신기술로 지정 · 고시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은 “제621호 길이 조절기능이 있는 1단 자유낙하방지를 위한 슬래브 거푸집 공법”과 “제622호 동일축상의 복합 원형절단기와 노면일치용 유압고정장치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SMT 공법)”이다.

제621호 신기술은 아파트 골조공사의 거푸집 해체시 슬래브거푸집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

여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시키고, 안전사고 및 충격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기존공법보다 공사비가 50%이상 절약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제622호 신기술은 맨홀보수공법(SMT공법)으로 도로 맨홀주위의 도로면을 원형으로 절단하는 장치를 개선하여 공사시간을 단축시키고, 노면과 맨홀틀의 높이를 정밀하게 일치시켜 차륜에 의한 충격을 감소시키고, 기존공법보다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법”이라고 밝혔다.

박덕홍 회장 행안부 초청 간담회 참석



코스카(대한건설협회) 중앙회 박덕홍 회장은 지난 3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에서 개최된 이종배 행정안전부 차관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의 활성화 및 성공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제역가축 매몰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 보링라우팅공사를 최근 완벽시공 마무리한 전문건설업체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건설협회, ‘유럽 선진 건설 현장 연수시찰단’ 모집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한·EUFTA 공식 발표를 앞두고 녹색성장을 위한 새로운 국제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는 유럽 국가의 친환경 건설현장과 건설제도 운영기관 등을 방문하는 ‘유럽 선진 건설현장 연수시찰단’을 모집한다.

정부 및 건설 유관 기관 관계자와 건설업체 임직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유럽 각국의 건설정책,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공사입찰제도 및 현지 건설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지역과 독일의 리젤펠트 및 보봉 주거단지 등 친환경 건설 현장과 UK CE를 비롯한 공공공사 발주 및 계약 관련 기관을 6월19~26일 7박8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한국감정원, 신용평가 최고등급 ‘AAA’ 획득”

한국감정원 및 13개 우수감정평가법인의 신용평가 등급

회사명	대표자명	신용평가등급
한국감정원	권진봉	AAA
가람감정평가법인(주)	강동원	BB+
(주)가온감정평가법인	노용호	BBB-
(주)경일감정평가법인	오영찬	A-
(주)나라감정평가법인	김중범	BBB+
(주)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허장식	A-
(주)대한감정평가법인	서민혁	A-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이동호	A-
(주)미래세한감정평가법인	이상필	BBB-
(주)삼창감정평가법인	김명환	BBB0
(주)제일감정평가법인	남영식	A0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유상동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이상구	A0
(주)하나감정평가법인	허용희	BBB0

한국감정원(원장 : 권진봉)은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로부터 Issuer Rating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2010년 2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평가 AAA를 받은 이후 2년 연속 최고등급 평가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시장의 유일한 공기업과 감정평가 선도업체로서 안정적인 영업실적과 꾸준한 흑자기조 등에 힘입어 무차입 경영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등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시험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물이 만드는 똑똑한 세상

빗물을 모아 공장을 움직이고 물로 도시전체를 밝힙니다. 삶의 터전인 논밭도 일어서 척척 가꿔주고, 기름없이도 자동차를 쉐빙 달리게 하는 똑똑한 물! 물은 깨끗한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입니다. 물로 더 행복한 세상, K-water가 만들어 갑니다.